

대우조선 하청 명천 정리해고 철회 합의

“하청노동자 스스로 투쟁 벌여 고용 지켜” ... 하청노동자 해고하면 한국 조선 미래 없어, 경중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한 대우조선해양 1차 하청업체 (주)명천 노동자들이 11월 27일 저녁 고용유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함께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25일

40m 높이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올랐다. 앞서 지회와 명천 노동자들은 66일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지회는 “4천 명 넘는 대우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대량해고 되는 시점에서 하청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벌여 고용을 지켜냈다”라며 투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지회는 정리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합심해 끝까지 싸워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이번 승리로 기뻐할 동료 하청노동자들과 묵묵히 연대의 역할을 다한 대우조선지회에 고마움을 전한

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며 거제조선소 독자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청노동자 해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자본과 정권에 “수천억 원 흑자를 생산한 하청노동자를 수천 명씩 해고하는 게 정당한 일인가.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고 일갈을 날렸다. 지회는 “조선소 직접 생산의 70% 이상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다 쫓아내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한국 사회에 물었다.

“위원장으로서 명천 정리해고 해결하겠다”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 경남 결의대회 ... “조선하청 대량해고 저지 신호탄이다”

“원청이 오늘 저녁 농성 크레인이 서 있는 독에 물을 채운다고 한다. 사람이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데 물을 채운다고 한다. 물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본의 이윤 앞에 사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가.”



대우조선 하청업체 명천으로부터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해은 조합원이 11월 27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연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절규했다.

명천은 지난 10월, 20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정리해고한다고 예고했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1월 3일부터 사내 선각삼거리 철야농성에 이어 11월 25일 김형수 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1독 타워크레인(TC-93)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대우조선 원청은 건조 선박의 진수를 위해 11월 27일 저녁 독에 물을 채운다고 밝혔고, 물을 채우면 선박과 맞닿아있는 크레인 위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다.

11월 27일 해고 예고일 사흘을 앞두고, 농성자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금속노조와 경남지부가 역량을 집중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원청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조선소 출입구를 막았다가 집회 시작 전 철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동지들의 정리해고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의 투쟁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정리해고의 신호탄을 막겠다는 몸부림이다”라고 정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명천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며 “명천 정리해고를 해결할 때까지 크레인을 사수하는 투쟁이 금속노조의 과제”라고 밝혔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묶인 매듭을 풀자고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27일 오후에 대우조선 책임자와 거제시장, 노동부 지청장을 상대로 김호규 위원장과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이 크레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명천 정리해고를 해결하자고 관련 기관과 자본 측에 요구했고,

사내하청협의회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지회 역시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명천 정리해고를 막아 내지 못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위협하다”라며 “금속노조, 경남지부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명천 정리해고와 관련해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회는 ▲명천은 정리해고 통보 노동자 중 현재 퇴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11월 27일 정리해고 취소를 통보한다. 정리해고와 같은 강제 인원축소를 하지 않는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사직서 반려를 신청하면 사직서를 반려한다. ▲명천은 필요 시 거제시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우선하여 1개월 단위로 순환 유급휴업을 시행한다. ▲명천은 투쟁에 참여한 정리해고 대상자 3명에게 11월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한다. ▲대우조선해양과 명천은 10월 28일 정리해고 통보 이후 발생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하청지회와 조합원, 주식회사 명천 노동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등 요구안을 던졌다.

금속노조 · 종로 주얼리 노동자, 녹색병원과 손잡다

금속노조, 녹색병원 발전기금전달 · 진료 지원 협약 ... 임상혁 원장, “늦게 손 내밀어 미안하다”



금속노조가 녹색병원과 주얼리(보석세공) 노동자 진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녹색병원에 발전기금 1,000만 원도 전달했다.

녹색병원은 협약에 따라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조합원들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노조는 종로 일대 보석세공 노동자들에게 녹색병원을 알리고,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녹색병원은 11월 27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노조와 녹색병원은 종로주얼리분회 조합원들에게 진료 지원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지원 투쟁을 위해 떠난 김호규 위원장을 대신해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박경선 지부장은 협약식에서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주얼리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

어줘 고맙다” 라고 인사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금속노조는 제조업 중심 노조이지만 최근 들어 판매, 서비스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많이 찾아오고 있다” 라며 특고노동자들에게 대한 녹색병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에 관한 신문 기사를 봤다. 이렇게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존재를 몰랐다. 더 일찍 손을 내밀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노동자가 믿고 찾아오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임상혁 원장은 종로주얼리분회의 투쟁 소식을 듣고 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주얼리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미뤄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금속노조에 업무협약을 통한 의료 지원을 제안했다.

이운근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아직 주얼리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 세공 작업과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도금, 코팅 작업을 같은 공간에서 할 것이다. 화학

물질 다량 사용과 좁은 작업 공간 때문에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근골격계질환 등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으며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약속했다.

녹색병원은 원진 재단이 직업병 노동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기 위해 세운 병원이다. 원진 재단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강고한 투쟁 끝에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해 직업병 판정을 끌어내며 받은 피해 보상금을 모아 1993년에 만든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녹색병원 원장실은 ‘낮은 곳을 지향하라’ 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지하 2층에 있다. 원장실 위치가 상징하듯 녹색병원 의료진들은 소외당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사회의 약자를 찾아가고 있다. 길거리 농성장은 물론 굴뚝, 철탑 등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희생이 전태일 정신” 이라는 임상혁 원장의 말은 많은 노동자가 녹색병원을 전태일 병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